

# 젠더 이데올로기에 대항하는 21세기 조직신학의 과제

곽혜원 박사<sup>1)</sup>

## 1. 젠더 이데올로기의 발흥과 인류 문명사의 위기

우리가 살아가는 21세기는 이전 세기와는 전혀 차원을 달리하는 인류 문명사적인 위기에 봉착해 있다. 장구한 역사 동안 무수히 많은 문명들이 흥망성쇠(興亡盛衰)를 거듭했었고 인류는 어느 시대에나 해결하기 어려운 난제들로 인해 위기에 직면하기 마련이지만, 지금 이 시대의 위기는 과거의 위기와 전혀 성격을 달리하여 우리를 경악시키고 있다. 지난 세기 내내 전 세계를 참혹한 이데올로기 냉전체제로 몰고 갔던 맑시즘(Marxism)이 오늘날 21세기에 전혀 다른 모습으로 탈바꿈하여 기사회생(起死回生)함으로써 인류 문명사에 암울한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이 시대 문명의 행보 중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동향은, 인간이라면 마땅히 받아들이 수밖에 없는 생로병사(生老病死)의 자연질서를 해체시키려는 거대한 움직임, 특히 남성과 여성의 성별(性別)이라는 하나님의 창조질서를 철폐하려는 가공할만한 움직임이다. 성별의 해체를 부르짖는 최선봉에는 맑시즘의 지대한 영향으로 세력을 확장한 ‘급진적 페미니즘’(radical feminism)과 ‘성정치-성혁명 이론’<sup>2)</sup>이 서로 결탁하여 발흥한 젠더 이데올로기(gender ideology)가 그 중심점에 서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젠더 이데올로기는 인간의 출생 시 선천적으로 부여받은 생물학적 성(sex)이 아닌 사회·문화·심리적 성으로 간주되는 젠더(gender)를 통해 후천적으로 임의대로 성별을 선택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시대사조이다.

젠더 이데올로기의 대표 주자 주디스 버틀러(J. Butler)는 남성과 여성이라는 구분 틀 자체를 해체시켜야 한다고 주장함으로써 남녀의 천부적인 성별을 허물어버리는 데 주력하고 있다. 특히 그는 젠더 이데올로기의 핵심 전략인 젠더주류화(= 성주류화, gender mainstreaming)의 이론적·사상적 기초를 마련하기도 했는데, 이것은 서구세계에서 아무도 반대할 수 없는 지배 이데올로기, 최고위층에 의해 강행되는 최고 순위의 국가 전략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였다. 인류의 장구한 역사 속에서 단 한 번도 인간 존재의 본질이 되는 남성과 여성이라는 성별의 정체성이 파괴된 적이 없었다는 사실을 인식할 때, 이것은 인류 문명사에 대재앙을 자초하는 일이라 아니할 수 없다.

이러한 젠더 이데올로기는 오늘날 이 시대의 위기를 해명함에 있어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시대사조인데, 특히 젠더는 그 위기의 중심에 놓인 핵심적 키워드라고 말할 수 있다. 본래 젠더는 언어학에서 남성형 명사 혹은 여성형 명사에 사용되던 단순한 문법용어에 불과했지만, 1950년대에 ‘존 머니’(J. Money)라는 존스 홉킨스(Johns Hopkins) 대학병원의 정신과 의사이자 성심리학자에 의해 실험적으로 사용된 이후 1970년대에 들어와 급진적 페미니스트들에 의해 서구세계에서 보편적으로 통용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다가

1) 이화여대 사회학과를 졸업했고, 한세대와 장로회 신학대학원에서 신학을 공부했으며, 독일 튀빙겐(Tübingen) 대학에서 조직신학 박사학위(Dr. theol.)를 받았다. 현재 21세기 교회와 신학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하는 연구공동체 <21세기교회와신학포럼>를 이끌고 있다. 저서로는 Das Todesverständnis der koreanischen Kultur(한국문화의 죽음이해), 『현대세계의 위기와 하나님의 나라』, 『삼위일체론 전통과 실천적 삶』(문화체육관광부 우수학술도서), 『자살문제, 어떻게 할 것인가』, 『존엄한 삶, 존엄한 죽음』(한국출판문화진흥원 우수저작), 『제2종교개혁이 필요한 한국교회』(공저), 『관계 속에 계신 삼위일체 하나님』(공저), 『죽음 묵회』(공저), 『과학은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가』(공저)가 있으며, 역서로는 위르겐 몰트만(J. Moltmann)의 저서들 『절망의 끝에 숨어있는 새로운 시작』, 『세계 속에 있는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은 정의이다』, 『희망의 윤리』를 번역하였다.

2) 사상사에서 ‘성정치’라는 용어를 최초로 창안한 빌헬름 라이히(W. Reich)는 성충동 해방이론인 ‘성정치학’을 주창하면서 정치가 거시적 제도의 차원을 넘어서 미시적 생활세계의 차원, 특히 사적인 성관계의 문제로 확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그러면서 그는 일부일처제 폐지와 성윤리 해체를 부르짖으면서 진정한 해방이란 성해방을 동반해야 하며, 성혁명을 이루기 위해선 성정치가 실현되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1995년 제4차 세계여성대회를 결정적 분기점으로 젠더 용어가 공식화되었는데, 이때부터 젠더는 사회·문화·심리적 성으로 명시되었고 섹스라는 용어를 대체하는 성관련 용어로 정착하게 되었다.

일개 성심리학자가 실험적으로 사용했던 용어, 그것도 결국 사람들을 기만한 허위 실험으로 판명된 희대의 사건에 오용되었던 용어가 오늘날 국제 사회에서 남녀를 위시하여 모든 성소수자들의 성정체성을 포괄하는 단어로 전환된 것은, 참으로 참람한 역사의 아이러니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어찌 보면, 젠더란 용어가 성소수자들을 정상화할 수 있도록 포석을 깔아주었다고 볼 수도 있다. 더욱이 영어권에서는 섹스와 젠더가 명백히 구분되기 때문에 젠더의 의미가 쉽게 전달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두 용어가 모두 동일하게 ‘성’으로 번역되기 때문에 혼란스러움이 가중되는 상황이다. 엄밀히 말해, 우리나라에서는 젠더에 해당하는 용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적절한 번역이 매우 어려운데, 이제는 종전처럼 ‘섹스’와 ‘젠더’를 모두 ‘성’으로 모호하고 애매하게 번역하지 말고, 섹스와 젠더로 명확히 구분하여 번역하면서 사회 전반에 젠더의 위험한 실체를 알려야 할 것이다.

여기서 인간의 성(性)에 대한 이해의 변천사를 간략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인간의 성은 출생 때 타고나는 생물학적 성(sex)에 따라 남성(男性) 또는 여성(女性)으로 결정된다는 것이 일반적 통념이었다. 과거에는 이 생물학적 성으로 인간의 성별을 남녀 이분법적으로 이해했고, 오늘날 또 다른 성으로 통용되는 젠더(gender)는 불필요하였다. 그런데 젠더 이데올로기가 널리 확산되면서 성을 다원주의적으로 이해함으로써, 인간의 성을 성기·염색체·성호르몬으로 결정되는 생물학적 섹스와 사회·문화·심리적 성으로 간주되는 젠더로 구별하게 되었다. 그러다가 오늘날 섹스는 성관계를 나타내는 용어로 점차 제한되고, 젠더가 성정체성을 나타내는 주류 용어가 되어가고 있다. 그러므로 섹스로 성별을 결정했을 때는 섹스 주류화(sex mainstreaming)였다면, 이제는 젠더가 주류가 되게 하자는 의미에서 젠더주류화(gender mainstreaming)가 서구세계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 것이다.

그런데 젠더에 입각하여 성을 다원주의적으로 이해하면서 파생되는 심각한 문제는 젠더의 실체가 기본과 상황에 따라 변화되는 성이다 보니까, 각자가 스스로 느끼는 대로 성별을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사실 인간의 정체성이란 일관성이 있어야 하는데, 젠더는 고정불변하는 것이 아닌 시시각각 사람들의 심리 상태와 사회문화적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변하는 것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신이 남성인지 여성인지 성정체성에 혼란을 느끼게 되었다. 급기야 남성도 아니고 여성도 아닌 제3의 성을 법적으로 용인하기 시작했고, 수십 가지의 온갖 괴이하고 비정상적인 젠더 퀴어들(gender queer)을 양산하게 되었다. 사실상 젠더 이데올로기는 각종 부도덕한 성관계를 맺는 젠더 퀴어들을 정당화하기 위한 방편이라는 것이 그 실체적 진실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상황 속에서 성과 관련된 강고한 재제가 풀릴 뿐만 아니라, 음란의 규범이 형법을 통해 강제화되어가고 있다. 물론 성규범이 해체되는 기저에는 사람들이 부(富)를 급격하게 축적하고 물질적 풍요를 누리게 되자 쾌락을 삶의 의미로 받아들이고, 특히 성을 삶의 중심에 두게 되었기 때문일 수도 있다. 하지만 좀 더 날카롭게 사태를 분석하면 이것이 성을 매개로 정치하려는 세력, 바로 성혁명을 강행하려는 세력의 전략 때문이라는 것을 간파할 수 있다. 사실 그동안 많은 사람이 동성애를 단순히 동성 간의 애정행각이나 성도덕 붕괴의 측면에서만 인식했지만, 젠더 이데올로기를 오랫동안 연구해 온 학자들은 성소수자들의 정치투쟁을 사회주의 혁명 그 자체로 보고 있다.<sup>3)</sup> 구소련을 위시한 동유럽에서 맑시즘이 패배한 후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던 맑시스트들은 마침내 서구세계에서 성혁명의 성공을 통해 기사화생하는 천운을 얻게 된 것이다.

이러한 젠더 이데올로기의 막강한 영향력으로 말미암아 장구한 세월 동안 인류 사회를 보편타당하게 지배해왔던 관습과 규범이 지난 50년 사이 급속도로 해체되고 있다.<sup>4)</sup> 천부적으로 부여된 남성과 여성 고유의 신체적 기능은 물론 남녀 양성이 결합하여 이루는 결혼 및 가정제도 역시 해체되고 있다. 일부일처제(monogamy)를 해체시키고, ‘인권’ 혹은 ‘성적 다양성’이라는 명목으로 레즈비언적(lesbian)·게이적(gay)·바이섹슈얼적(bisexual)·트랜스젠더적(transgender)·간성적(intersexual) 파트너십, 그 외 온갖 괴이하고 비정상적인 관계를 대안적 생활 공동체로 제안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젠더 이데올로기는 성규범을 와해시키고 도덕적·윤리적 기준의 해체를 강요함으로써, 예로부터 전승된 덕성·도덕·정절과 같은 숭고한 가치개념을 거부하고 새로운 젠더 이데올로기의 내용(전통 거부·해방·자유·쾌락·난잡 등)으로 포스트모던 세계를 잠식해나가고 있다. 이것이 인류 문명사에 어떤 암울한 그림자를 드리우게 될 것인지는 너무나 명약관화한 일이다.

3) 이정훈, 『교회 해체와 젠더 이데올로기』(서울: 킹덤북스, 2018), 17.

4) G. Kuby/정소영 역, 『글로벌 성혁명: 자유의 이름으로 자유를 파괴하라』(서울: 밝은생각, 2018), 17.

이러한 젠더 이데올로기의 위험성에 대해 독일 튀빙엔(Tübingen) 대학의 복음주의 선교신학자 페터 바이어 하우스(P. Beyerhaus) 교수는 매우 의미심장한 발언을 한 바 있다. 즉 그는 1789년 프랑스 혁명(정치적 신분제를 전복시킨 혁명), 1917년 볼셰비키 혁명(경제적 계급제를 전복시킨 혁명)과 함께 젠더주류화를 ‘제3의 세계사적 혁명’(생물학적 질서를 전복시킨 문화인류학적 성혁명)이라고 일컬으면서 남녀의 성별 질서, 결혼과 가정의 기본 질서를 부정하는 인류 문명사적으로 매우 위험한 혁명이라고 지적하였다. 그러면서 바이어하우스는 이것이 남녀의 생물학적 성별을 창조질서로서 주신 하나님의 창조 명령을 부정하는 사탄적 원천을 지니며 하나님의 주권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반신론적·무신론적 이데올로기라고 역설하였다.<sup>5)</sup> 이미 2012년 12월 21일에 교황 베네딕토 16세도 젠더 이데올로기 안에 깊이 숨겨진 비(非)진리성과 문화인류학적 혁명을 경고하기도 했다.

## 2. 젠더 이데올로기가 강행하는 패륜적 성혁명이 강타한 서구세계

젠더 이데올로기가 21세기 들어와 서구세계에서 가열차게 강행하는 것은 바로 글로벌 성혁명(global sexual revolution)이다. 글로벌 성혁명이 특히 우려스러운 것은, 한 남성과 한 여성의 신성한 결합인 일부일처제를 해체시키고 온갖 다양한 젠더정체성<sup>6)</sup>을 가진 성소수자들의 프리섹스를 적극 옹호함으로써 결혼 및 가정의 해체를 집중적으로 공략하기 때문이다.<sup>7)</sup> 오늘날 젠더 이데올로기가 휩쓸고 지나간 서구세계에서 결혼은 더 이상 한 남성과 한 여성의 신실하고 지속적인 결합이 아니라, 단지 육체적 쾌락을 즐길 수 있는 불순한 계약관계(때로는 서로의 혼외정사도 허용할 것을 요구하는)로 간주되는 추세이다.<sup>8)</sup> 심지어 젠더 이데올로기 추종자들은 일부일처제를 타파하기 위해 다수의 남녀들이 동거하는 폴리 아모리(poly-amory), 다(多)애인제를 제안하기도 한다.<sup>9)</sup> 사실상 동성애는 시작일 뿐이고 성혁명의 끝자락은 폴리 아모리로 이행할 수밖에 없다는 게 필자의 진단이다.

젠더 이데올로기가 강행하는 성혁명의 핵심은 바로 성규범의 해체이며, 그로 인한 악영향은 사회 전체의 성애화(性愛化)를 통한 타락과 패륜의 확산이다. 성혁명이 한창 진행 중인 서구세계에서는 성규범이 와해되고 도덕적·윤리적 기준의 해체가 강요됨으로써, 음란의 규범이 형법을 통해 강제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성과 관련된 강력한 규범들이 급속도로 풀려서 사람들이 점점 더 성적으로 문란해지고, 특히 동성애가 또 하나의 묵인된 성문화, 또 다른 인류의 대체적 쾌락이 되어가고 있다.<sup>10)</sup> 이러한 성도덕의 규제 완화는 문화가 부패한다는 징후인데, 이것은 개인에게 손상을 입힐 뿐만 아니라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기도 한다. 이혼의 급증으로 인한 가족공동체의 붕괴, 광범위한 정신·심리적 장애의 만연, 사라져가는 질병이었던 성병의 전염병적 유행,<sup>11)</sup> 엄청난 수효의 태아를 죽이는 등은 사회가 쇠퇴하고 있다는 신호이다.

오늘날 성혁명이 휩쓸고 지나간 서구세계에서는 포르노에 대한 규제 완화가 일반화되어 있다. 수십 년 전

5) P. Byerhaus, “Widersteht gegen Gender-Ideologie!”(젠더 이데올로기에 대항하라!), 2016년 6월 10일, <기독교 학술원> 제10회 해외석학 초청강연 자료집.

6) 남성 동성애자 단체인 ‘친구사이’는 안드로진(androgyne, 남녀가 혼합된 성별), 뉴트로이스(neutrois, 남녀가 아니라 제3의 성의 정체성을 가진 중성), 에이젠더(agender, 어떠한 성별에도 속하지 않은 무성), 젠더플루이드(genderfluid, 성정체성이 고정적이지 않고 심리상태에 따라 흐르는 물처럼 유동적으로 전환) 등 다양한 젠더 퀴어(gender queer)가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7) 김영한, 『젠더주의 도전과 기독교 신앙』(서울: 두란노서원, 2018), 24f.

8) P. Beyerhaus/이선민 역, 『현대 선교와 변증』(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11), 298.

9) 김영한, “젠더 이데올로기 비판 V: 인권 및 가치 개념의 젠더주의적 조작”, 『베리타스』(2017.12.22).

10) 곽혜원, “여성신학자가 바라본 퀴어신학의 이단성 문제”, <신학과 윤리 포럼> 자료집(2018.08.08.), 28.

11) 매독이나 임질같이 완전히 사라진 것으로 생각되었던 성병이 귀환했고, 새로운 유형의 성병이 전염병 수준으로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다. 특히 치명적인 것은 클라미디아, 트리코모나스 그리고 자궁암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진 고 위험성 인유두종 바이러스(HPV)이다. 미국에서는 매년 1,900만 건에 달하는 새로운 성병이 발생하는데, 감염자 중 절반이 15-24세 젊은이인 것으로 보고된다. 특히 성적으로 왕성한 청소년들이 가장 위험한 집단인데,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에서는 10대 소녀 중 25%가 성병을 앓고 있으며, 매년 2만 4천 명의 여성이 성병으로 인해 불임이 된다고 밝힌 바 있다. 가브리엘레 쿠비는 성애화가 매독과 임질 발병률을 다시 높였으며, 많은 젊은 여성들을 영구적 불임으로 만드는 성병의 폭발적 확산을 불러왔다고 진단한다: G. Kuby, 『글로벌 성혁명』, 314, 330.

포르노는 출판 미디어나 비디오, 성인극장에서 상영되는 영화로만 제한되어 성인 남성들이 배타적으로 소비하는 경향이었지만, 이제는 나날이 발전하는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미디어가 광범위하게 선택권을 제공함으로써 '새로운 글로벌 재앙'으로 급부상하고 있다.<sup>12)</sup> 포르노는 인터넷을 통해 언제 어디서 누구나 접근 가능함으로써 모든 사회, 모든 계층, 모든 직업, 모든 연령대에서 포화상태에 있다.<sup>13)</sup> 미디어의 시대는 악의 이미지로 인간의 정신에 지속적인 상흔을 남기는 시대인데, 그 이미지는 통제할 수 없는 힘으로 인간의 생각과 판타지, 꿈을 점령하고 인간의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특히 포르노는 인간의 존엄성을 위협하고 영적·육체적·사회적 차원에서 매우 심각하고 지속적인 해악을 끼치는데, 이것이 생명을 지속시켜 주는 관계를 파괴하고 병적 중독성을 갖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므로 포르노를 통한 이 세계의 음란화는 개인과 가족, 전체 사회에 재앙과도 같은 파괴적 결과를 초래한다.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아이들이 성애화로 말미암아 크나큰 해를 입는 일이다. 앞서 언급했던 젠더주류화의 패키지에 의무교육의 필수 교과목으로서의 성교육이 포함되어 있는데, 10대들의 성애화는 도덕성을 말살시켜버리는 방향의 주입식 세뇌교육으로 실행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아동 및 청소년의 성애화를 촉진시키는 단체들에는 유엔 산하단체(대표적: 유네스코)도 개입되어 있는데, 이 단체들은 아동기부터 성적 충동을 활성화시켜 성행위에 대한 도덕적 한계를 제거하는 데 모든 자원을 투입하는 상황이다. 아동과 청소년의 성애화로 인해 조기 성관계가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데, 이것은 공권력과 학교, 언론이 끊임없이 성으로 아이들의 뇌리를 사로잡은 당연한 결과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조기 성관계의 위해성, 이를테면 상호 헌신에 바탕을 두지 않은 난잡한 성행위로 인한 여러 부작용, 아이들의 심리적·정신적 상처와 자살 위험 등을 경고하는데, 특히 소녀들에게 치명적인 위험성(대표적: 성병 감염으로 인한 영구 불임)을 폭로하고 있다.<sup>14)</sup>

인간에게는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선악을 위한 나침반이 필요한데, 특별히 성은 도덕의 닻에서 분리될 때 필연적으로 영적·사회적 붕괴가 일어나기에 이에 대한 올바른 지침이 반드시 필요하다. 사실 건전한 의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어린이와 청소년을 성애화로부터 보호해야 한다는 데 동의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에 대한 성애화는 여전히 진행 중에 있으며, 이들을 대상으로 한 성적 학대는 근절되지 않는 상황이다. 왜 이 사안이 사회적·국가적 안건이 되지 않는 것인가? 왜 이를 척결하기 위한 사회적·정치적 행동이 일어나지 않는 것인가? 이에 대한 해답은 명백한데, 이것은 곧 타락과 패륜이 만연한 성중독, 음란물의 전염병적 범람이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속에서 이미 대중적 현상으로 확고하게 자리잡았기 때문이다. 이 시대의 문화는 성적 욕망을 통제하라고 가르치지 않고, 오히려 역으로 '섹스의 즐거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데, 끊임없이 성적 욕망을 유발시키는 성욕 과다 사회가 욕구 충족 대상으로 가장 취약한 무방비 상태에 놓인 아이들을 악용한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sup>15)</sup>

사실 모든 사회구성원의 인생사와 사회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성규범은 가장 사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공적인 의미를 지니는데, 왜냐하면 그것이 인간의 희로애락(喜怒哀樂)에 강력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성도덕이 무너지면 한 개인은 물론 가정공동체와 사회공동체가 무너지고, 더 나아가 국가공동체, 심지어 문명이 붕괴된다. 이런 연유로 인류는 시대와 지역을 초월하여 성적 일탈을 강력한 사회적·법률적 제재 대상으로 삼음으로써, 성규범은 오랜 역사 속에서 엄격한 처벌 규정으로 보호되어왔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왜 이토록 성규범이 해체되는 것인가? 물론 오늘날 성규범이 해체되는 기저에는 사람들이 부(富)를 축적하고 물질적 풍요를 누리자 성을 삶의 중심에 두게 되었기 때문일 수 있다. 하지만 좀 더 날카롭게 사태를 분석하면 이것이 성을 매개로 정치하려는 세력, 바로 성혁명을 강행하려는 세력의 전략 때문이라는 것을 간파할 수 있다.

12) G. Kuby, 『글로벌 성혁명』, 186.

13) 최근 포르노를 보는 사람들의 수요는 가히 충격적인데, 인터넷 사용자 4명 중 1명(특히 18~34세 남성의 경우 66%)은 매일 포르노 웹사이트를 방문하는 것으로 보고된다. 청소년기의 남자아이들에게 포르노의 소비는 이제 일상화된 상태이고, 아동 포르노 시장은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시장으로 보고되지만, 스마트폰 시대에 더 이상 이들을 보호할 수 없게 되었다. 특히 주목할 것은 포르노 소비자의 3분의 1이 여성인 상황 속에서 미국의 경우 41%의 여성이 최소한 한달에 한번은 포르노 웹사이트를 방문하고, 1천만 명 이상의 여성이 규칙적으로 음란물을 소비한다는 사실이다. 인터넷이 세계에서 가장 발전한 한국 사회는 이러한 미국 사회의 포르노물 홍수 상황과 크게 다를 바 없을 것이다: cf. 김영한, 『젠더주의 도전과 기독교 신앙』, 68.

14) M. Grossman, "You are Teaching My Child What?", cit., note 5, 35 et seq.

15) G. Kuby, 『글로벌 성혁명』, 322.

### 3. 젠더 이데올로기의 부산물, 친(親)동성애적 퀴어 신학이 횡행하는 기독교계

젠더 이데올로기가 기독교계, 특히 신학계에 끼친 심각한 피해는, 바로 친(親)동성애적인 퀴어 이론(queer theory)을 발판으로 퀴어 신학(queer theology)이라는 이단적인 신학 분파를 만들어낸 일이다. 퀴어 신학은 모든 만물이 유전(流轉)한다고 주장하는 후기 현대적 생성의 철학에 근거하여 인간의 성(性)도 남성이나 여성으로 고정되지 않고, 양성이 자유롭게 유동(流動)한다는 사상의 기반 아래 해체주의적 세계관·인간관이 가세하여 만들어낸 신학 사조이다. 특별히 퀴어 신학은 낯설고 이상함을 뜻하는 ‘퀴어’(queer)를 전면내세움으로써 정통 신학에서 낯설고 이상한 것, 괴기하고 비정상적인 것으로 배제되어 변두리로 밀려났던 테마를 신학의 중심에 내세우고 이를 억압에서 해방시키기 위한 신학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데, 여기서 낯설고 이상한 것은 동성애를 전적으로 의미하는 것이다. 결국 퀴어 신학은 생소하고 괴이한 대상으로 혐오되어 왔던 동성애를 신학적으로 정당화하고 비정상적인 동성혼을 정상화하는 데 종교적 목적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동성애에 대한 신학적 정당화를 위해 퀴어 신학자들은 보수주의 성서학자들의 문자주의적 성서해석을 통해 동성애가 죄악시되었다고 비판하면서 성서에 기록된 동성애를 역사 비평적으로 재해석한다. 퀴어 신학의 대부이자 로마가톨릭 신부요, 철학자이자 심리학자인 다니엘 헬미니악(D. A. Helminiak)은 성서가 동성애자들의 도덕성이나 윤리성에 대해 아무런 직접적 입장을 표명하지 않음으로써 동성애에 관한 한 중립적 견해를 취한다고 주장한다.<sup>16)</sup> 시카고 신학대학의 퀴어 신학자 테오도르 제닝스(T. W. Jennings) 또한 동성애에 대한 기독교의 전통적 관점이 잘못된 동시에 왜곡되었다는 견해를 피력한다. 그러면서 그는 다수의 성서 텍스트들이 동성애 관계와 행위를 긍정함은 물론 찬양까지 한다고 주장하면서 동성애라는 것이 저주도 아니고 범죄도 아니며,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선물이라고 결론짓는다.<sup>17)</sup> 심지어 동성애가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라는 퀴어 신학자들의 주장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퀴어 신학자들은 동성애가 죄악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격론을 벌이기도 하는데, 먼저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가 동성애를 정죄하지 않았기 때문에 동성애가 죄악이 아니라고 강변한다. 그러면서 그들은 예수가 명백히 성적으로 부정한 행실에 대해 아무런 책망도 하지 않고 오히려 관대한 태도를 보였던 사람이라면 비윤리적 성일탈에 개의치 말고 살 것을 넉넉히 암시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주장인데, 왜냐하면 동성애가 심각한 죄악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께서 동성애에 대해 논쟁하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1. 구약의 동성애 정죄에 대한 율법적 교리에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며, 2. 이방 문화와 달리 동성애에 대해 엄격한 교육이 이뤄졌던 유대 문화에서 동성애가 큰 사회문제로 드러난 적이 없기 때문이며, 3.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인 고대 유대인들이 성에 대해 드러내놓고 말하기를 꺼리는 보수적이고 폐쇄적인 사회에서 살았기 때문에 동성애와 같은 패역한 행위에 대해 직접적 언급을 피했다고 말할 수 있다. 퀴어 신학자들이 성규범을 깨닫지 않는 비윤리적 방종은 성서에 기반한 기독교적 윤리관에 전적으로 배치되는데, 왜냐하면 성서가 독려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성결한 삶이기 때문이다.

퀴어 신학자들은 동성애가 죄악이 아님을 증명하기 위해 성서 안에 동성애자들이 많다고 유추하면서 그 사례를 다음과 같이 열거한다. 그들이 기본 텍스트로 채택하는 헬미니악의 『성서가 말하는 동성애』에는 다윗과 요나단(삼상 18:1, 20:20; 삼하 1:26)의 애정관계를 위시하여 다윗과 사울(삼상 16:21)의 관계 역시 연인관계로 묘사되어 있다(요나단-다윗-사울의 삼각관계). 또한 룻과 나오미(룻 4:16)의 관계를 문학작품에 최초로 등장한 레즈비언 로맨스로 추정하고, 다니엘과 환관장도 동성애 관계였을 가능성을 언급하며, 예수께 병든 하인을 고쳐달라고 청원했던 백부장과 종(마 8:5-13)의 관계 또한 동성애 관계라고 주장한다. 듀크대 신학과 리처드 헤이스(R. B. Hays) 교수는 마리아와 마르다가 혈연적 자매라기보다는 레즈비언이었을 가능성도 주장한다.

퀴어 신학자들은 성서의 거의 모든 인물이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여 훨씬 더 많이 동성애에 대해 개방적이었을지도 모른다는 무모한 주장도 제기한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들이 참람하게도 하나님마저 동성애자로 만들어버린 사실이다. 테오도르 제닝스는 그의 저서 『예수가 사랑한 남자』(부제: 신약성서의 동성애 이야기)에서 예수와 사랑하는 제자 요한의 사이가 동성애 관계였을 개연성을 제기하면서 소위 ‘게이적 성서 읽기’를 시

16) D. A. Helminiak/김강일 역, 『성서가 말하는 동성애』(서울: 해울, 2003), 20-30.

17) T. W. Jennings, “성서는 동성애를 ‘긍정’한다”, 제3시대그리스도교연구소, 퀴어 신학자 테드 제닝스 강연회 연설 내용, <http://m.ildaro.com/5328>에서 인용.

도한다. 요한이 예수의 가슴에 누워있는 육체적 친밀함에서 평범한 사제공간이 아니라, 동성 간에 육체관계를 나누는 모습이 엿보인다는 것이다(요 13:21-26). 그뿐만 아니라 제닝스는 예수께서 최후의 만찬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실 때 옷을 벗은 상태였고 제자들은 그의 무릎에 눕거나 가슴에 닿을 정도로 바짝 기대었다고 말하면서, 이것은 성애적 사랑의 관계를 나타냈을 물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은 예수가 여자의 역할을 한 것이라고 해석하기도 한다.<sup>18)</sup>

지면에 실기에 대단히 민망하지만 사태를 냉정하게 직시하기 위해 반드시 지적해야 할 내용이 있다. 이는 곧 동정녀(童貞女) 마리아가 낳은 아기 예수가 남성으로부터 물질적 요소(남성성)를 전혀 물려받지 않고 여성인 마리아로부터만 자양분을 받았으므로, 예수의 몸이 ‘자웅동체’(雌雄同體)라는 주장이다. 이에 예수께서 상황에 따라 남성도 되었다가 여성도 되었다가 유동적으로 바뀌는데, 십자가상에서 창으로 옆구리가 찔린 상처에 대한 해석이 망령되기 이를 데 없다. 그들은 예수의 옆구리 상처를 여성의 몸으로 변화되신 자궁으로 해석하면서, 외부 상처는 여성 성기의 외음부이고, 피와 물은 여성 성기에서 나오는 애액이라는 것이다.<sup>19)</sup> 또한 로마가톨릭에서 행해지는 예수의 상처에 수녀들이 입맞추는 의식은 여성화되신 그리스도의 몸과 동성애적으로 구강 성관계하는 의식이라는 것이다.<sup>20)</sup> 무엇보다도 예수가 성매매 여성의 아들 혹은 사생자라거나, 하나님이 남근(男根)을 지닌 남신(男神)으로서 신자들과 성애(性愛)를 나누는 신이라는 참으로 해괴망측하기 이를 데 없는 신성모독적인 주장도 서슴지 않고 있다.

우리는 쿼어 신학자들의 성서해석을 보면서 그들이 과연 어떤 마음가짐으로 성서를 읽는지를 간파할 수 있다. 그들에게는 우정과 동성애 사이의 구분이 존재하지 않아서 모든 친밀한 관계는 다 동성애 관계로 간주하는 경향이다. 음란의 프레임에 갇힌 상태에서 성서를 해석하니까 모든 것을 음란하게 생각하는 것 같다는 의구심도 든다. 그런데 쿼어 신학자들은 성서의 많은 인물을 동성애자로 간주하는 한편으로, 명백히 동성애를 죄악으로 단정한 성서구절들에 대해선 왜곡된 해석이라고 강변하기도 한다. 구약과 신약에는 동성애에 대해 직접적으로 언급한 구절들(레 18:22; 20:13; 롬 1:26-27; 고전 6:9-10; 딤후 1:10)과 함께 문맥상 동성애와 관련된 성구들(창 19:5; 삿 19:22; 유 1:7)도 있는데, 쿼어 신학자들은 그동안 보수주의 성서학자들이 이 구절들을 잘못 해석하면서 이성애를 하나님의 창조질서로 바라보고(이성애 중심적) 동성애를 죄악으로 정죄(동성애 혐오적)해 왔다고 비판한다.

위의 성구들에 대해 쿼어 신학자들이 재해석한 내용을 살펴해보노라면, 대단히 어리석은 궤변과 비논리적인 억지주장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는데, 그들은 성서 전체를 문맥을 따라 읽으면 충분히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내용도 막무가내로 왜곡시켜버리는 오류를 범하는 것이다. 특히 소돔과 고모라 사건(창 19:1-11)이 명약관화하게 동성애와 연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전적으로 부정하는데, 즉 이 사건이 약한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집단적 강간을 저지르려는 불법을 지적한 것일 뿐만 아니라, 동성애자들에 대한 인류의 범죄를 정당화하는 데 악용되어 왔다고 역공격하는 식이다. 과거엔 동성애자들이 자연적 순리에 위배되는 자신들의 부끄러운 행동을 은폐하기에 급급했지만, 오늘날엔 이미 공공연하게 드러난 동성애자들의 비윤리적 행태보다 이성애자들의 혐오가 훨씬 더 심각하다면서 비난의 화살을 오히려 이성애자들에게 돌림으로써 논점을 흐리기도 한다.

쿼어 신학자들은 동성애에 대한 이성애자들의 혐오를 비판하는 강도보다 훨씬 더 강한 어조로 이성애에 대해 대립각을 세우는데, 특히 성애와 생식(출산)을 관련시키는 이성애 중심주의가 전통 기독교적 성윤리라는 괴물을 만들었다면서 이것이 동성애 혐오의 뿌리라고 역설한다. 그들은 동성애를 적극적으로 미화하는 만큼 이성애에 기반한 결혼과 가족제도에 대해 적대감을 드러냄으로써 결혼과 가족적 가치에 근본적 의문을 제기하기도 한다. 쿼어 신학자 중에서 특히 제닝스는 복음서에 나타난 역사적 예수가 명백히 성적인 비규정성에 크게 문제가 없었던 사람, 곧 성적으로 부정한 행위에 의해 전혀 충격을 받지 않았던 사람이라면서 비윤리적인 성일탈에 개의치 말고 살 것을 넌지시 암시하기도 한다. 이처럼 제닝스가 결혼 및 가족적 가치를 폄하하고 성규범을 꽤 넘치 않는 비윤리적인 방종은 성서에 기반한 기독교적 윤리관에 전적으로 배치되는데, 왜냐하면 성서가 독려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가족생활 중심의 성규범과 성결한 삶이기 때문이다.

18) T. W. Jennings/박성훈 역, 『예수가 사랑한 남자(부제: 신약성서의 동성애 이야기)』, (서울: 동연, 2011), 67ff.

19) E. Stuart, “Sacramental Flesh”, in: Queer Theology, 66.

20) A. Hollywood, “Queering the Beguines”, in: Queer Theology, 163.

## 4. 무신론적·반신론적 젠더 이데올로기에 대항해야 할 21세기 조직신학의 과제

### 4.1 동성애에 대한 총체적 연구와 확고한 입장 표명

무신론적·반신론적 젠더 이데올로기가 수용하는 동성애를 죄악시하는 성서의 입장은 시종일관 너무나 명약관화하다. 앞장에서 기술했듯이, 구약과 신약에서 직접적으로 동성애에 대해 언급한 구절은 레위기 18:22와 20:13, 로마서 1:24-27; 고린도전서 6:9-10; 디모데전서 1:10이며, 문맥상 동성애와 관련된 성구는 창세기 19:5; 사사기 19:22; 유다서 1:7이다. 먼저 레위기 18장과 20장 말씀은 당시 이방민족 사이에 동성애가 편만했음을 기술하면서 이 풍습을 하나님께서 가증스럽게 여기신다는 것과 이를 멀리하는 것을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으로 명령하고 있다. 특히 20장에서 동성애(13)는 간음(10-11), 근친상간(12,14), 수간(15-16) 등과 함께 반드시 죽여야 할 죄의 목록에 포함됨으로써, 모든 민족이 다 동성애를 행해도 야훼 하나님의 백성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고 천명한다. 신약시대에 와서도 동성애를 죄악으로 규정하는 입장은 계속 견지되는데, 특히 로마서 1:27에서 바울은 동성애로 말미암은 폐해를 ‘하나님의 보응’이라고 말씀하면서 당시 권세를 휘두르는 이들을 위시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동성애를 행하던 사회를 향해 준엄한 심판의 말씀을 선포한다. 단언하면, 구약시대와 동일하게 신약시대에서도 동성애를 가증한 죄로 여기고 금지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의 표지, 곧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한 정체성의 일부라고 말할 수 있다.

동성애를 죄악으로 정죄한 성서의 명령에 따라 기독교가 로마제국의 국교로 제정되면서 가장 먼저 금지했던 것이 바로 동성애였다. 초기 기독교 교부들은 동성애를 죄악시했는데(대표적: 성 어거스틴은 동성애를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약속을 훼손하는 행위, 악마와 손을 잡는 행위로 규정), 이에 의거하여 4세기 말엽 이후 로마제국은 동성애를 범죄로 선포하고 동성애자들을 사형에 처하게 되었다. 중세시대에 들어와서 동성애에 대한 기독교 신학자들의 입장은 더욱 공고해졌고(대표적: 토마스 아퀴나스는 동성애를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로 규정) 동성애 금지는 더욱 강화됨으로써, 당시 동성애자들은 사형을 피해 지하로 숨어들게 되었다.<sup>21)</sup> 이러한 동성애자들에 대한 처벌의 역사는 20세기 초반까지 지속되었다. 그러다가 20세기 중후반에 들어와 그동안 기독교 전파와 함께 지하로 숨어들었던 동성애는 점차로 사회의 전면에 등장하게 되었다. 그 배후에는 자본주의의 발달로 인한 물질적 풍요와 성적 쾌락의 추구, 욕망대로 살 수 있는 막대한 힘의 축적, 주변과 중심의 경계를 허물고 모든 사람의 의견과 감정과 가치를 존중해야 한다고 요청하는 포스트모더니즘(postmodernism)의 발흥을 들 수 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동성애를 죄로 여기는 기독교의 쇠퇴가 가장 원초적 원인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인류 역사에서 동성애자들의 유일한 방해물은 기독교였는데, 기독교가 영적인 권위를 상실해가는 것이 오늘날 동성애가 다시 번성하게 된 가장 결정적 요인인 것이다.<sup>22)</sup>

여기서 동성애에 대한 평가가 지난 세기 급변한 상황을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사실 심리학의 창시자인 지그문트 프로이트(S. Freud), 칼 융(C. G. Jung), 알프레드 아들러(A. Adler)의 영향 아래 동성애는 심리적 성정체성 장애로 인식되어왔다. 그러다가 1973년 미국정신의학회(APA)가 고위층을 점유한 동성애 옹호세력의 정치적 압력으로 인해 치료가 필요한 정신질환 목록에서 동성애를 제외시키기로 결정했는데, 바로 이것이 동성애에 대한 그동안의 판세를 역전시키는 순간이 됨은 물론, 추후 동성애의 원인에 대한 과학적 토론 자체를 차단시켜 버리는 결정적 계기로 작용하게 되었다. 이로부터 17년 후 세계보건기구(WHO)가 APA의 결정을 채택함으로써, 오늘날에는 동성애가 ‘자연의 변이’로 간주되고 있다. 하지만 남성 동성애자들 위에 드리워진 거대한 어둠의 그림자인 치명적 자가면역질환(HIV/AIDS)이 전 세계인들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남성 동성애자들은 정신질환, 특히 심각한 우울증과 불안장애, 자살충동이 높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자살률이 이성애자들보다 월등히 높다는 사실 또한 문제의 심각성을 드러낸다.<sup>23)</sup> 무엇보다도 필자는 젠더 이데올로기의

21) 신학자팀 공동연구자료2, “동성애를 옹호하는 신학, 왜 이단인가“, 「신학과 윤리 포럼」 자료집(2018.08.08.), 64.

22) 위의 책, 64.

23) 화이트헤드(N. E. Whitehead)는 동성애자의 자살률이 일반인보다 8배 더 높으며, 동성결혼을 인정해 주는 노력에도 이들의 자살률을 낮추지는 못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김지연, “동성애의 보건의료적 문제점”, 「기독교동성애대

최대 희생양인 남성 동성애자들(MSM: Man who have sex with Man)의 고독사 위험성을 염려한다.<sup>24)</sup> 이처럼 상황이 위중함에도 마땅히 책임감있게 역사 변혁을 선도해야 할 국제기구들<sup>25)</sup>과 공권력이 동성애와 관련된 부조리한 현실을 은폐하고 동성애 옹호활동을 감행하는 일은 역사의 심판을 받을만한 직무 유기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그뿐만 아니라 오늘날 문제제기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동성애 옹호세력이 이 문제를 차별받는 소수자의 인권 보호라는 프레임으로 선동함으로써, 동성애라는 비윤리적 현실의 본질, 곧 동성애자들의 문란한 성중독 실태를 철저히 은폐하고 일반 대중들로 하여금 이성적 판단을 내릴 수 없도록 사태를 호도해버린 일이다. 이로 인해 동성애를 반대하는 것은 마치 사회약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비인간적·반지성적 행태로 오인됨으로써, 동성애 문제에 대한 건전한 담론이 아예 차단되어버린 상황이다.<sup>26)</sup> 더욱 착잡한 현실은 동성애 옹호세력이 영향력 있는 미디어와 인권단체를 악용하여 동성애를 미화하는 사회 분위기를 확산시키는 한편으로, 글로벌 국제기구와 막강한 국가권력을 등에 업고 동성혼 법제화를 강행하면서 반대자들(주로 기독교공동체)의 비판을 원천 봉쇄하는 일이다. 그러므로 성소수자를 보호하고 동성혼을 합법화하는 국가적 결정에 따라 오늘날 동성애를 반대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오히려 교권과 공권력에 의해 신앙과 양심의 자유를 침해당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에서조차 악의 세력이 구조적으로 편만하게 정착되어가는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상황 속에서 오늘의 조직신학의 과제는 동성애에 대한 학제 간 총체적 연구와 하나님의 창조질서를 거스르는 죄악이라는 분명한 입장표명이다.

## 4.2 동성애를 신학적으로 정당화하는 퀴어신학의 이단 정죄와 신학계의 갱신

그동안 한국 기독교계에서는 퀴어 신학의 이단성에 대한 학문적 연구와 논의가 지지부진하였다. 하지만 이제는 위중한 문제의식 속에서 퀴어 신학의 이단성에 대해 성서에 입각하여 단호한 입장표명과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하는 상황이다. 사실상 퀴어 신학이 다른 이단보다 죄질이 훨씬 더 악한 것은 성결한 하나님의 말씀을 음란한 인간의 말로 치환시킬 뿐만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음란한 잡신으로 전락시켜 버리기 때문이다. 2006년 영국에서 발행된 『퀴어 주석』의 한국어 번역본이 현재 출판을 앞두고 있는데, 이 주석은 성서 66권을 모두 동성애적 관점으로 재해석함으로써 성서의 본질을 훼손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퀴어 주석 한글판이 보급되어 퀴어적 해석이 일반화되면, 성서적 윤리관에 대한 강한 충돌과 혼란으로 이어질 위험성이 매우 농후할 뿐만 아니라, 성서적 가치관을 지키려는 교회와 성도들이 사회적·문화적·제도적으로 공격당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sup>27)</sup>

더욱이 미래세대·대학생 세대에서 동성애 옹호 움직임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상당수 크리스천 청년들이 주축이 되어 시대의 조류에 함몰되어 동성애 포용에 앞장서는 상황이다. 무엇보다도 한국의 신학교육 현장에서

책아카데미」자료집(2018.1st), 152에서 재인용.

24) 필자가 진단하는 자살 및 고독사의 최대 위험군은 일정한 직업 없이 지병을 앓으면서 혼자 사는 중장년 이혼 남성 혹은 독신 남성이다. 그런데 남성 동성애자들은 주로 40세 이전에 무수히 많은 파트너들과 복수연애하면서 성적으로 방종하는 삶을 살다가, 40·50대 이후가 되면 그로 말미암은 각종 신체적 질병으로 인해 파트너들에게서 버림받고 실직하고 파탄난 인생을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필자는 향후 많은 남성 동성애자들이 병든 몸으로 외롭게 살아가다가 홀로 쓸쓸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고독사의 직격탄을 맞게 될 거라고 우려한다: 객해원, “젠더 이데올로기가 야기하는 가정해체와 건강한 가정 구축의 당위성”, 『젠더 이데올로기에 대한 비판적 고찰』자료집(2019.09.18.), 51.

25) 유엔(UN)과 유럽연합(EU)이 젠더 이데올로기에 편승하여 젠더주류화(GM)를 강행하는 것은 이미 공인된 사실이다. 68혁명 세대 중에 최상교육을 받은 핵심그룹이 글로벌 정치·경제·사회·문화·교육·언론·종교계 전반에서 주도권을 걸머 쥐고 있는데, 이들에 의해 장악된 국제기구들은 세계 각국 행정부에 성혁명을 하도록 막강한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 특히 우려스런 일은 유력한 국제기구들이 전통적 가치체계를 전복시키고 성소수자를 대변하는 권력의 중심지가 된 현실이다: cf. G. Kuby, 『글로벌 성혁명』, 81-102, 129-146.

26) 이러한 사회 분위기에 함몰되어 2001년 네덜란드를 필두로 과거에 유구한 기독교 전통 속에서 복음의 꽃을 피웠던 서구의 많은 국가들이 동성혼을 합법적으로 허용하는 방향으로 급진화하게 된 것이다. 무엇보다 우려스러운 일은 동성애를 정죄하는 전통을 유지해왔던 북미와 서구 유럽의 주류 교회들, 곧 장로교, 감리교, 그리스도의 교회, 루터교 등의 교단들까지도 이 시대의 거센 조류에 굴복해 버린 현실이다.

27) “퀴어신학 이단성에 대한 신학적 고찰”(2015.11.20)



최근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친(親)동성애적 행보들은 문제의 심각성을 여실히 드러낸다. 이러한 현실은 쿼어 신학의 폐해로부터 한국교회의 청년들, 특히 예비 성직자들을 보호해야 할 당위적 과제와 책임을 한국교회에 부과하는데, 이들은 마땅히 올바른 신학교육을 받아서 인류 문명사적 위기에 봉착한 이 시대를 하나님의 진리의 영으로 선도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한국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한 신성을 모독하는 쿼어 신학을 이단으로 결의함으로써 미래세대가 올바른 가치관과 신앙관을 가진 건전한 사회인이자 신실한 신앙인으로 자라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인류 문명과 서구세계를 대신하여 대리전(代理戰)을 치르는 위중한 시대적 책임을 짊어진 한국교회는 의에 살고 의에 죽는 일사각오(一死覺悟)의 일념으로 헌신하는 가운데 각계각층의 전문가들과 연합하여 다각도로 치밀하고 지혜롭게 대처함으로써, 대내적으론 쿼어 신학을 이단으로 결의하는 한편으로, 대외적으론 동성혼 합법화를 반드시 막아내야 할 것이다.

그런데 필자는 ‘쿼어 신학을 이단으로 정죄하고 신학계를 갱신함에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은 다름 아닌 신학교가 아닌가?’하는 의구심을 갖고 있다. 상당수 신학자들은 동성애 옹호세력에 점령당한 대학 총학생회의 눈치를 보면서 포퓰리즘에 영합하거나, 신성모독 수준으로 성서를 재해석하면서 동성애를 지지하는 쿼어 신학에 예언자적 비판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데, 이것이 동성애와의 영적·사상적 전쟁에서 가장 큰 장애가 될 거라고 우려하기 때문이다. 현재 한국교회에서 진행되는 반(反)동성애 사역은 평신도와 목회자가 서로 동역하면서 조직적으로 잘 전개되는 양상이지만, 문제는 동성애 사안을 놓고 분열된 신학계다. 평신도와 목회자들은 신학자들이 견고한 신학적 기반을 제공하고 교리를 굳건히 세워서 이 사역을 견인해 주길 기대하지만,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현실이 너무나 안타깝다. 평신도들이 핍박을 무릅쓰고 반동성애 사역을 이끌어 가고 목회자들이 적극 후원하는 이 사역에 신학자들이 방관하거나 반대 목소리를 내는 현실이 너무나 유감스럽다. 사실상 신학교부터 회개하여 동성애에 대해 한목소리를 내고 실천적으로 동성애를 막는 결단을 행동하지 않으면, 절대로 동성애의 물결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일이다. 이러한 문제상황 속에서 오늘의 조직신학은 동성애를 신학적으로 정당화하는 쿼어 신학을 교리적으로 연구하여 이단으로 정죄하고 신학계를 새롭게 정화하는 갱신에 힘써야 할 것이다.

### 4.3 음란하고 패역한 성혁명에 맞서는 거룩하고 성결한 성혁명

고대 이교도 세계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계시는 전적으로 새로운 것이었다. 이스라엘 근동에는 절제된 성규범이 존재하지 않아서 이방 족속들은 동성애(homosex)와 근친상간(incest), 수간(zooophilia) 등을 아무런 거리낌 없이 자행했지만, 이 음란하고 패역한 이교도 세계에서 하나님이 선민 이스라엘에게 주신 계명은 이전엔 전례가 없는 거룩하고 성결한 성혁명이었다. 하나님은 동성애를 통해 상호보완적인 성(性)의 경계를 넘고, 근친상간을 통해 혈연 간의 경계를 넘고, 동물과의 성관계를 통해 생물 종(種) 간의 경계를 넘는 것을 철저히 금지하셨다. 이에 역사적으로 볼 때 성규범을 철폐하려는 움직임에 대한 저항은 항상 그리스도의 교회로부터 시작되었다.<sup>28)</sup> 모든 시대에 걸쳐 교회는 변함없는 기독교 복음의 진리를 밝히 드러내야 할 책무가 있기 때문이다. 잘못된 시대사조가 휩쓸고 지나가면서 세상을 부패시키지만, 각 시대마다 그리스도의 진리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희생한 이들로 말미암아 세상은 정결해지게 된다.<sup>29)</sup>

인류 문명의 무모한 도전에 강력한 제동을 걸고 시대와 공간을 초월하여 인류가 반드시 사수해야 할 보편타당한 윤리적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기독교 공동체만이 감당할 수 있는 시대적 과제다. 특별히 동성애 문제와 관련하여 다른 종교들이 일체 함구하면서 불의한 타협의 길을 걷어가는 데 반해, 기독교는 동성애로 인해 인간의 존엄성이 훼손당하는 반(反)인권적 폐해와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보건 위생적 문제<sup>30)</sup>를 고발함으로써 반(反)동성애를 표명하기 때문이다. 이로 말미암아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동성애를

28) 위의 책, 265.

29) 미국의 보수 가톨릭 대변인 프랜시스 조지(F. E. George) 추기경은 죽기 직전에 다음과 같은 어록을 남긴 것으로 전해진다: “나는 내가 침대에서 편안히 죽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내 뒤를 잇는 사람은 감옥에서 죽게 될 것이고, 그의 뒤를 잇는 사람은 광장에서 순교하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그의 뒤를 잇는 사람은 무너진 사회의 남은 조각들을 모아 인류 역사에서 교회가 늘 그래왔듯이 서서히 문명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일을 돕게 될 것이다.”

반대하는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세력의 연합, 일명 ‘악의 연합’이 이루어져 기독교를 핍박하는 위태로운 국면에 접어들게 되었다. 현재 그리스도인들은 점차로 세상에서 가장 핍박받는 집단에 속하는 것으로 보고된다. 글로벌 성혁명 세력은 기독교를 철저히 적으로 간주하는데, 왜냐하면 자본주의를 붕괴시키려면 이를 지탱하는 가족제도와 인간의 성을 혁명적으로 재구성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이면에 정신적 지주로서 존재하는 교회를 파괴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해주었던 서구 기독교 국가들이 동성애에 굴복함으로 인해 교회들이 붕괴되는 위기상황에 봉착해 있다. 서구세계의 복음적 교회들은 한국교회가 동성애 문제를 과연 어떻게 극복해 나갈 수 있을지 예의 주시하면서 기도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이제 한국마저 무너지면, 동성애 문제를 성서적 해법으로 이겨낼 국가는 이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을 거라고 우려하기 때문이다. 이들 교회들은 과거 자신들이 한국에 선교사들을 보내 기독교 복음을 전했다, 이제는 역으로 한국교회가 서구세계의 교회들을 회복시켜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가 서구세계의 전철을 지켜보면서 대책을 마련할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천재일우(千載一遇)의 기회라 아니할 수 없다. 일단 법제화가 이루어지면 앞질러진 물이 되기 때문에 지금은 고군분투해야 할 때이다. 교회는 세상의 심장이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살아나야만 이 세상이 살아날 수 있다. 그러나 만약 한국교회가 죽으면 이 세상도 희망이 없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책임의식을 갖고 오늘의 조직신학은 음란하고 패역한 성혁명이 횡행하는 이 시대에 거룩하고 성결한 성혁명을 일으켜야 한다.

#### 4.4 가정해체에 대항하여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건강한 가정공동체 구축

젠더 이데올로기의 파급력이 우려스러운 것은 바로 가정해체를 야기하는 매우 위험한 시대사조라는 점이다. 오랫동안 죽음 연구에 천착하면서 가정공동체의 중요성을 절감했던 필자가 젠더 이데올로기를 연구하면서 특히 주목한 것은, 젠더 이데올로기와 가정해체 사이의 상관성이다. 젠더 이데올로기가 영향력을 확대함으로 말미암아 장구한 세월 동안 인류 사회를 보편타당하게 지배해 왔던 관습과 규범이 지난 50년 사이 급속도로 해체되고 있는데,<sup>31)</sup> 특별히 일부일처제(一夫一妻制)에 기반한 전통적 결혼 및 가족제도가 직격탄을 맞고 있다. 젠더 이데올로기는 한 남성과 한 여성의 신성한 결합인 일부일처제 대신 다양한 젠더 정체성을 가진 성소수자들(LGBTQI)의 프리섹스를 적극 옹호함으로써 결혼 및 가정의 해체를 집중적으로 공략한다. 특히 ‘인권’ 혹은 ‘성적 다양성’이라는 명목으로 다양한 젠더 정체성을 가진 성소수자들의 온갖 괴이하고 비정상적인 관계를 대안적 생활 공동체로 제안함으로써,<sup>32)</sup> 젠더 이데올로기와 가정해체 사이의 상관성은 너무나 명약관화하다.

젠더 이데올로기가 전통적 결혼 및 가족제도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상황 속에서 필자가 건강한 가정공동체 구축과 세대 전승의 당위성을 강조하는 이유는, 가정을 지키는 것이 바로 인간 자신을 지키는 일, 더 나아가 사회와 국가와 문명 자체를 지키는 일이라는 사실을 오랜 연구를 통해 발견했기 때문이다. 즉 가정은 단순히 자연적·사회적 구성단위가 아니라, 남녀 간의 관계와 세대 간의 관계를 끊으려야 끊을 수 없게 이어주는 생명줄, 인류가 후손에게 대대로 전수해주고 길이 보존해야 할 인류의 보고이자 자산이다. 이러한 가정은 서로 간의 진실한 사랑의 결실인 자녀를 낳기 원하는 한 남성과 한 여성의 일부일처제에 기초해야 견고하고 올바르게 세워질 수 있는데, 그 연유는 이 안에서 인간의 성(性)이 거룩해지고 보호받고 축복받을 수 있음은 물론 다음세대가 가장 잘 자라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가정 중심의 성결한 성규범은 성서가 독려하는

30) “한국 HIV/AIDS 코호트 연구팀”이 2006년부터 2018년까지 HIV/AIDS 감염인들을 추적 조사한 결과, 전 세계적으로 매년 신규 HIV/AIDS 감염의 발생은 서서히 감소하는 데 반해, 유독 우리나라의 신규 HIV/AIDS 감염은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특히 젊은층(18~29세)의 감염 실태가 매우 심각한데, 주된 감염 경로로 동성 및 양성 간 성 접촉(71.5%)으로 지목되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HIV 감염 증가의 첫1단계는 남성 간 성행위 때문이라고 명백히 밝히고 있다: 김준명, “국내 HIV 감염의 감염 경로: 한국 HIV/AIDS 코호트 연구”, 「성과 생명 윤리 포럼」 자료집(2018.10.15), 27ff.

31) G. Kuby/정소영 역, 『글로벌 성혁명: 자유의 이름으로 자유를 파괴하라』(서울: 밝은생각, 2018), 17.

32) 김영한, 『젠더주의 도전과 기독교 신앙』, 24f.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므로 필자는 이 시대의 기초가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해 젠더 주류화 대신 ‘가족 주류화’(family mainstreaming)를 대안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건강한 가정공동체의 구축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야 할 이 시대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사명을 위해서도 대단히 가치있는 일이다. “젊은이를 지배하는 자가 미래를 지배한다”는 격언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직면한 글로벌 성혁명이 횡행하는 문화인류학적 전쟁에서 과연 누가 승리할지를 결정하는 말일 것이다. ‘전통’(tradition)이란 단어가 ‘전수하다’는 의미의 라틴어 ‘트라데레’(tradere)에서 유래하듯이, 만일 어떤 세대가 그 조상들로부터 인간이 반드시 지녀야 할 미덕들(선·진리·정의·지혜·절제 등)을 전수받지 못한다면, 그들 역시 다음세대에 이를 전수해주지 못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기독교 신앙과 가치체계가 한 세대를 거쳐 다음세대까지 전승되지 못하면, 기독교 전통은 종언을 고하게 될 것이다.<sup>33)</sup> 상황이 이러하다면, 다음세대에 기독교 신앙과 가치체계를 전수하는 일은 이보다 더 위중한 일이 없을 만큼 우리 세대의 가장 중차대한 사명일 것이다. 사실상 기독교가 2천 년의 유구한 역사와 세대를 이어올 수 있었던 것도 바로 가정이 건재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 4.5 남성과 여성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이 회복된 공동체 형성

젠더 이데올로기가 급진적 페미니즘의 변질된 시대사조라는 사실을 직시할 때 크리스천 여성의 과제를 상고하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젠더 이데올로기를 강행하는 중추세력이 급진적 페미니스트들, 바로 여성들이기 때문이다. 사실 그동안 장구한 인류 역사에서 파괴적 결과를 가져온 이데올로기 체계를 발전시킨 것은 거의 남성들의 전유물이었는데, 이를테면 폭동과 전쟁 등은 거의 모두 남성들이 자행한 일이었다. 하지만 오늘날 인류 문명을 위협하는 글로벌 성혁명은 여성들이 주도한 혁명인데, 이것은 인류 문명사에서 거의 유일한 사례이다. 그렇다면 ‘왜 페미니즘은 젠더 이데올로기로 변질되었는가?’, ‘왜 여성들은 결혼 및 가정을 해체시키는 성혁명을 강행하게 되었는가?’ 가장 유력한 이유는, 남녀차별이 도무지 극복되지 않으니까 아예 생물학적 성별을 해체시켜 버리는 젠더 이데올로기로 나아갔을 뿐만 아니라, 여성차별의 강고한 질서인 결혼 및 가족질서를 파괴시켜 버리려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그 오랜 장구한 세월 극도로 억압받아왔던 여성들의 복잡한 심경, 곧 상처와 좌절, 분노를 읽을 수 있다. 이에 페미니스트들은 성차(性差)가 생물학적 결정이 아닌 사회적 관행의 결과임을 강조하기 위해, 기존의 성별을 의미하는 섹스 대신 젠더를 그토록 종용했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차별적 체제에서 고통당하는 여성들의 인간적 존엄성을 회복하려는 인권신장 운동에서 일어난 초기의 건전한 페미니즘이 급진적 페미니즘을 거쳐 성별의 해체를 감행하는 젠더 이데올로기로 변질된 것은 문명사적으로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 아니할 수 없다. 사실 그 역사적 배경, 곧 여성차별이 고질적 악행으로 연면히 이어져 내려온 현실은 너무나 참혹한 역사이기에 이에 대해선 진정성 있는 해결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역사상 얼마나 많은 여성이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고난과 슬픔, 수치와 굴욕을 겪으며 모질고 한많은 인생을 살다갔는지 모른다.

이러한 맥락에서 기독교 복음주의 운동의 거장 존 스토틀(J. Stott)는 여성 억압이 너무나 장구한 세월 만연되어 왔기 때문에 남성 지배적 사회가 보상해 주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그러면서 그는 페미니즘이 여성들이 성별 때문에 제도적·사회적 불의로 고통을 받는다는 확신에서 나온 ‘성별에 근거한 불의를 철폐하는 운동’이므로, 모든 그리스도인이 여성들의 정의에 대한 외침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즉 모든 형태의 페미니즘은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있어서 ‘정의’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 어떤 관계를 맺고 어떤 역할을 해주기를 바라시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교회에 긴급한 과제를 던진다는 것이다.<sup>34)</sup> 이 문제에 대해 한국교회도 특단의 대책을 강구함으로써 점점 더 거세게 교회 안으로 밀려오는 페미니즘에 응답해야만 하는 상황이다.

33)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주일학교가 문을 닫고 다음세대의 출석수가 급감하는 상황 속에서 다음세대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사명의 위중함은,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지 않을 경우 가브리엘레 쿠비의 말대로 “하나님에게는 손자가 없다”는 격언이 절대 인정하고 싶지 않은 가혹한 현실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34) J. Stott/정옥배 옮김, <현대사회 문제와 그리스도인의 책임>(서울: IVP, 2011), 367.

이처럼 장구한 인류 역사의 폐습이었던 여성차별의 고리를 끊고 여성의 존엄성을 세우는 일이 매우 중차대한데,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깊이 유념해야 할 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과 목적 또한 인간의 존엄성을 지향해야 한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문제해결 방식이 인륜(人倫)에 치명적 위해를 가하고 고귀한 인간 존재를 파괴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이는 또 다른 병폐가 되어 인류 문명을 파탄시키는 대재앙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크리스천 여성들의 역할과 사명이 대단히 중차대하다는 사실을 직감한다. 래디컬 페미니스트들이 주축이 되어 이 세대를 전복시키려는 위기의 역사적 국면 속에서 인류의 미래를 장기적으로 내다보는 거시적 해안과 인류의 안녕을 최우선적 가치로 생각하는 사려깊은 책임감, 건강한 가족공동체를 구축하려는 건전한 사고, 무엇보다 올바른 신앙을 가진 크리스천 여성의 역할과 사명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청된다.

끝으로 한국교회 안에서 여성의 존엄성이 훼손당하는 현실을 짚고 넘어가야만 한다. 오늘날 일반 사회의 진일보한 변화와 달리, 한국교회에서 여성은 예나 지금이나 남성의 그늘에 파묻혀 있기 때문이다. 교회의 여신도 수가 남신도 수보다 월등히 많지만, 대다수 교단은 교회법을 통해 남성과 여성의 위계질서를 고수하고 있다. 여성이 성직(聖職)을 임명받을 수 없는 현실 이면에, 교회의 모든 허드레 일은 여신도의 몫이다. 극소수의 교단만이 여성의 장로 임직과 목사 안수를 허용하지만, 그 안에서도 여성 사역자는 남성 중심의 차별구조를 감수해야 한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남성 목회자에 의한 성범죄가 여전히 은폐·축소되는 가운데 성폭력에 대한 징계 규정조차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현실이다. 현재 한국교회 안에서 지적으로 우수한 여신도들이 남녀차별의 장벽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실정인데, 이 문제에 대해 한국교회가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만 하는 상황이다. 한국 신학계와 목회 현장에 여성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이 뿌리내려야 한국교회가 젠더 이데올로기를 향해 당당하게 비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안에서 여신도와 여성 사역자가 자신을 존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힘차게 감당할 때, 한국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이 흥왕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오늘의 조직신학은 남성과 여성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이 회복된 공동체를 형성하는 데 기여해야 한다.